

임실N치즈축제 5일간 열린다

임실 방문의 해 맞아 기존 4일→5일 확대… 10월 8~12일 개최

임실 방문의 해를 맞은 올해 임실N치즈축제는 기존 4일이 아닌 5일간 더 특별하게 개최된다.

군은 지난 20일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임실N치즈축제 제정위원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치즈축제는 기존 4일에는 올해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더 특별하게 준비, 성공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는 뜻있는 지난해 10회 축제에 대한 결산과 새로운 10년의 시작을 알리는 올해 11회 축제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하고 축제가 나아갈 방향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더 특별하게 5일간 열릴 2025 임실N치즈축제는 주요 관광지인 옥정호 출렁다리와 성수산, 오수의견관광지 등과 연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축제의 완성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군의 대표 축제인 임실N치즈축제는 '임실N치즈'와 '임실N치즈피자'를 테마로 대한민국 최초의 치즈 역사를 기념하면서, 지난 1967년 지정환 신부가 신앙 2마리로 시작한 임실치즈 산업의 역사를 계승 발전시켜 왔다.

지난 2015년 1회 축제에서는 10만여



임실 방문의 해를 맞은 올해 임실N치즈축제는 기존 4일이 아닌 5일간 더 특별하게 개최된다.

명이 방문했으나, 이후 해마다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지난해 10회를 맞이한 임실N치즈축제 기간에는 58만여명의 관광객이 대거 몰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명불하전, 역시 임실N치즈축제'의 위상을 재입증했다.

군은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문화체육관광부 3대 '최우수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다.

올해 축제는 지난해 선보인 대표 프로그램 △국가대표 밀키트 쌀피자 만들기 △임실N치즈 애플로 페이드 △임실N치즈페어 △임실N치즈 대형

풍위 등을 더욱 완성도 높게 준비하면서, 속성치즈와 무가당 요거트 활용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한다.

심 민 군수는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그간 10년을 쌓아온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10년을 앞서는 성공적인 2025 임실N치즈축제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치즈축제의 성공과 더불어 옥정호 출렁다리, 봉어섬 생태공원, 성수산, 오수의견관광지 등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특화 지역으로서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전종영 기자

봄기운 머금은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남원시, 4월 초까지 채취 나서

남원시는 지리산 고지대인 뱀사골, 반야봉 일원에 형성된 고로쇠나무 군락지에서 봄기운 머금은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채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전했다.

올해 첫 고로쇠 수액 채취를 시작으로 4월 초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일 때 채취량이 절정을 이룬다. 자연이 주는 선물



과도 같은 고로쇠 수액은 계속 열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어느 해보다 품질

을 더욱 좋게 만들었다.

지리산 뱀사골 지역은 고로쇠나무 자생지로 유명하며, 해발 600m 이상인 산내면 뱀사골 인근에 서식하는 지름 20cm 이상의 고로쇠나무에서 채취하는데 해풍이 미치지 않는 지역 특성상 전국 최고의 맛과 품질로 주목을 받고 있어, 봄기운을 맛보려는 이들의 주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농한기 100여 농가의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오는 3월 8일 산내면 뱀사골(반선 주차장)에서는 '제37회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 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안전한 외식환경 위해 시설개선 지원

남원시는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주방, 홀,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 △임식테이블 지원 등으로 총 시설개선비의 70%, 업소당 최대 500만원(자부담 30% 포함)을 지원하며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이 남원시로 등록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로, 식서류 취급음식점이 아닌 주점 형태의 음식점, 휴폐업 중인 업소, 신청일 현재 임식테이블 설치 완료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서류를 3월 5일까지 보건소 위생안전팀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남원시지부에 접수하면 된다.

남원시 보건소 회민자 보건지원과장은 "시설개선 지원으로 위생적, 경제적, 친화경적 음식 문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이용객의 외식문화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은 순창 고추장, 밤, 블루베리 등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순창 담은(DAMEUN) 초콜릿'을 개발했다.

‘순창 담은 초콜릿’ 출시

군, 지역 농특산물 활용 차별화된 미식 경험 제공

순창군이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프리미엄 디저트 산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군은 올해부터 순창 고추장, 밤, 블루베리 등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순창 담은(DAMEUN) 초콜릿'을 개발하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로코노미(Loconomy) 트렌드에 발맞춘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로코노미는 '로컬(Local)'과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트렌드를 의미한다. 이는 소비자들이 단순한 제품 구매를 넘어, 지역 고유의 이야기와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군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놓치지 않고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프리미엄 디저트 브랜드 출시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번에 선보인 '순창 담은 초콜릿'은 '순창의 맛과 정성을 가득 담은 초콜릿'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전통과 자연, 정성을 현대적인 디저트로 승화시킨 프리미엄 브랜드로 탄생했다. 이는 단순한 초콜릿이 아닌, 순창의 고유한 이야기를 녹여낸 차별화된 미식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이다.

최근 순창쉴랜드에서 열린 초콜릿 시연회에서는 순창의 대표 디저트를

선보이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지역 내 5개 카페가 참여했으며, 국내 유명 쇼콜라티에 피정훈 대표가 초콜릿 제작 시연을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순창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초콜릿 레시피가 공개되었고, 참여 업체들은 순창만의 독창적인 식재료가 초콜릿과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군은 이번 초콜릿 개발을 통해 매콤한 고추장, 달콤한 밤, 상큼한 블루베리의 풍미를 살려 감칠맛이 돋보이는 독창적인 맛을 구현했다. 아울러 군은 '순창 담은 초콜릿' 본격 판매 시기를 3월 14일 화이트데이 초점을 맞추고 향후 지역 백화점과 대형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순창의 전통 발효식품인 고추장을 비롯한 다양한 농특산물의 매력을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의 농특산물과 현대적인 초콜릿 문화를 접목한 '순창 담은 초콜릿'을 출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이 제품이 순창 농산물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미식 관광 경험을 선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모집

임실군 보건의료원이 오는 3월부터 2025년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할 신규 인원 150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AI·IoT(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으로 스마트폰 앱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보건소 전문가가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 관계없이 스마트폰 소지자 중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 1~5등급자 및 아이폰 소지자, 전년도 참여자는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은 임실군 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실로 전화(063-640-3156)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임실=전종영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위한 카드수수료 지원

순창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이며, 국제청 홈택스 자료를 기준으로 카드 매출액의 0.5%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도박업소와 성인용품 판매점 등 사행성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이번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평생학습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남원시가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평생학습관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상반기 정규 프로그램은 3월 10일 개강하여 6월까지 운영되며 △패션/양재 △컴퓨터 기초 △건강한 베이킹 △캘리그래피 △라인댄스 등 총 30개 과정 340여 명의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학습관 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런(learn) 저런(learn)과 외부 교육장을 활용한 △여디나교실로 나뉘며, 올해 교육은 연중 지속적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시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상반기 16주, 하반기 12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수강 신청은 남원시 통합예약·신청 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성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남원시민 50% 이상 참여 시 강좌가 개설되고, 수강생 모집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평생학습관(063-620-5624)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